

#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 '청년 스마트도시' 구축

## 국비 30억원 확보...옛 청호중에 K-디지털플랫폼 공모사업 선정

목포시가 국비 30억원을 확보해 관내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구 청호중학교에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구축에 나섰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스마트 청년 도시를 위한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최근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K-디지털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국비 30억원을 확보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K-디지털플랫폼 공모사업은 디지털·그린 전환을 선도할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디지털 융합 훈련 시설과 장비를 구축·공유하고 지역 내 주력산업 등과 연계해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융합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스마트인재개발원,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와 함께 △목포시에 최적화된 스마트 정책과 사업 모델 연구자문 △사업 발굴과 중앙정부사업 유치 △

목포시 학생·청년을 위한 학습·취업·창업·역량강화 지원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과 지원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힘써왔다.

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지역 내 학생, 청년, 미취업자 등을 위한 스마트인재교육센터를 구청호중학교에 구축하고 인공지능·로봇 관련 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산업현장의 환경과 동일하게 구현한 메타버스 체험공간에서 가상 업무

체험을 진행하고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시비를 들여 청년층의 4차산업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4차산업에 최적화된 전문인력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스마트도시 목포의 시발점으로 잡혀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기기 설치 목포시, 80세대 이상 공동주택

목포시는 8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RFID 장비)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종량제 기기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무게로 측정하는 전자태그 방식으로 버릴 때마다 배출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배출자 스스로 감량 의지를 높이고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공정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가 기기 안에 있어 미관상 깨끗하며, 장비 배출구가 자동 개폐돼 음식물류폐기물을 버릴 때 위생적인데다 악취를 줄일 수 있다.

올해 시는 공동주택에 종량제 기기(RFID 장비) 28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관리주체가 있는 8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오는 3월17일까지 목포시청 자원순환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목포시 수문로 32, 4층 자원순환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이 진행하는 목포의 맛 브랜드화를 위한 미식프로그램인 쿠킹 클래스 '오늘은 뭐 먹지?'가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주1~2회 운영되고 있으며 목포의 맛집 청년대표들이 강사로 나서 레시피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맛을 선보이고 있다. **목포시 제공**

##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성향 목포의 맛 브랜드화 호평

목포의 '맛' 브랜드화를 위한 미식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목포미식문화갤러리해관1897에서 목포의 맛을 요리하고 맛볼 수 있는 쿠킹 클래스 '오늘은 뭐 먹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목포의 맛집 청년 대표들이 강사로 나서 레시피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셰프 클래스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키즈 쿠킹클래스, 남도 전통 맛을 배워보는 남도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다.

쿠킹클래스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프로그램으로 주 1~2회 운영되고 있으며 매회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말 마무리 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쿠킹클래스 뿐 아니라 외식업 지원 교육, 푸드 토크쇼, 디저트 경연대회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식문화갤러리해관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목포 9미뿐 아니라 MZ세대를 겨냥한 미식 콘텐츠를 기획·운영한다. 해관을 목포만의 차별화된 맛과 특색을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쿠킹클래스를 시작으로 현재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맛의 브랜드화를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지역 소상공인에 용자·이자지원 시행

목포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용자지원(최대 한도 3000만원) 및 용자금 이차지원(최대 3%)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2년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의 대출 및 용자금 이차 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1년이었던 대출기한을 2년으로 확대해 고금리 시대의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주점업, 도박 관련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는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무안군 삼향읍 오룡3

길 2, 5층)에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 여부를 전화로 상담 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물가와 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부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하거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061-270-8459),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에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 신안 팔금 자치위와 자매결연 목포시 목원동 주민자치위



목포시 목원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임지용)가 신안군 팔금면 주민자치회(회장 강정근)와 도·농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두 단체는 서남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농상생발전 공동 목표달성을 위해 농촌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지역 행사 초청 등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임지용 위원장은 "양 단체의 교류를 통해 서남권 통합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 목원동장은 "주민자치 역량 증진에 도모하고 팔금면과 교류 활동을 통해 상생발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최우수 선정... 4회 연속 최우수등급

목포시는 목포시청소년수련원(원장 주인철)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22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로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은 물론 포상금을 받게 됐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전국의 210개 자련권 수련 시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데, 종합적인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이용 및 프로그램, 시설 운영 발전 등 5개 분야와 건축·토목·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시설 안전 점검 등을 평가



목포시청소년수련원 해 선정된다.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은 이번 평가까지

4회 연속 최우수 시설에 선정됐고, 3회 연속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주인철 원장은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수련원으로 발전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은 꿈·도전·공동체 의식을 지닌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목포 YMCA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목포시, 태양광 폐패널 방문수거

목포시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문수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남해탈 전자제품자원순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이 진행된 것.

이순환거버넌스 콜센터(1599-0903)나 홈페이지(www.15990903.or.kr)로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수거는 개당 최대 1200mm×2000mm이거나 35kg까지 가능하며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태양광패널 업체를 통해 자체 처리해야 한다.

무상 수거대상은 철거·해체 작업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렇지 않을 때 작업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목포=정기찬 기자**